



고용노동부

시련에  
꺾이지 않는  
열렬한  
마음

방송작가  
천준아



Vol.597

FEBRUARY 2025

월간 **내일**



02 February 2025  
Vol.597

Vol.597

# Contents

2025.02

Vol.  
597

시련에  
꺾이지 않는  
열렬한 마음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 Special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04

### 토픽 에세이

찬란한 인생을 위한 끝이 없는 여정

08

### 쉬어가기

그럼에도, 인생이여 만세

10

### 어쩌다 우린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2024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나은요양병원

14

### 내일 인터뷰

열정이란, 삶이라는 '영화'에서  
열연하는 나에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천준아 방송작가

##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 내일을 향한 도약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설렘으로 오늘도 맑음  
이슬 씨

22

### 고용 아카이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6

### 희망 브릿지

열정으로 딛는 걸음, 행복에 성큼 다가서다  
김현철 씨

30

### 일터애(愛)서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34

### 내일, 매일

우리들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  
황영주 반려식물병원장



##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8

### 내일, 플레이스

가평에서 만난 이탈리아 Piacerè! 가평 이탈리아마을

42

### 트렌드 프리뷰

5천 원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가성비

44

### MOEL 뉴스

48

### 팩트폴리스

예민한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더 예민한 감각 '기후감수성'

50

### 잡, MBTI

메이크업아티스트

52

### 넬톤

님아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요 & 나를 꺼내줘

54

### WEVENT

초성 퀴즈 & 독자 라운지

## 찬란한 인생을 위한 끝이 없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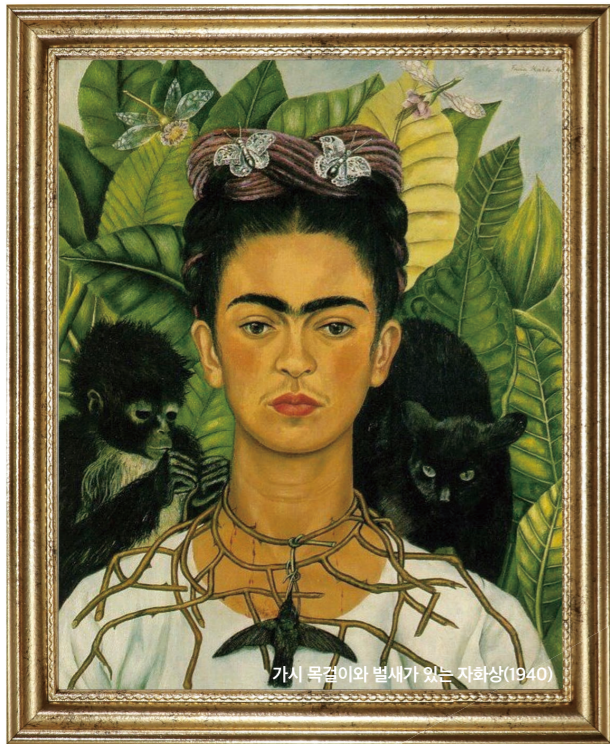
오늘 하루 힘들지는 않았나요?  
지친 일과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이 삶을 덮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름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땐 몸을 움직여 내면에서 숨어 있는 불꽃을 깨워보세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불꽃,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힘을 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삭여 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살피고 가꾸도록 일깨워줍니다.

열정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어떤 날은 그 불씨가 겨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지키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열정은 다시 큰 불꽃이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열정으로 채워진 삶은 모든 순간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찬란한 인생이여! 만세





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상(1940)

## 그림에도, 인생이여 만세

한 여인이 있다. 그녀의 삶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난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해 전 세계의 예술가와 활동가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겼다.

글 이원울

### 죽음 앞 평온한 여인

잘린 다리, 뒤틀린 척추, 고열에 휩싸인 몸... 한 여성의 숨소리가 열려지고 있다. 의사도 기어코 한숨만 내쉰다. 그녀 주변 사람들은 이에 울고, 쓰러져 신음하고, 엎드린 채 통곡한다. 그런데 정작 곧 세상을 등지게 될 당사자는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낙담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

기를.” 그녀는 진작에 유서처럼 이런 글도 썼다. 이 여인의 이름은 프리다 칼로. 그녀는 턱 밑까지 온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처럼 담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살아있는 매 순간 열정을 다했기에, 더는 삶에 미련이 없어서는 아니었을까. 그녀의 불꽃 같은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추측에 더욱 설득력이 실린다.

### 끈질긴 불행

칼로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코요아칸에서 출생했다. 칼로는 어릴 적부터 당찬 면을 보였다. 언제 어디서든 목소리가 컸고, 누구 앞이든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했다. 그런 그녀는 1913년,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았다. 이때가 고작 여섯 살 때였다. 생애 첫 시련을 마주한 칼로는 거기서 풀이 죽지 않았다. 오른 다리를 절고 ‘나무다리’라는 모욕적인 별명까지 따라붙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칼로는 1922년, 멕시코 국립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곳은 당시 멕시코 내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여학생은 고작 35명뿐인 시설이었다. 그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얼마나 공부에 매달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칼로는 이 학교에서 의사 수업을 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흰 가운을 입고,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이를 정성껏 돌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또 한 번 시련이 다가왔다. 1925년, 9월 17일. 그녀를 태운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그녀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뿐, 아픈 몸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칼로는 사고 이후 평생 서른다섯 번의 대수술을 받는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아픈 척추 수술도 일곱 차례나 받게 된다. 그래도 절망은 잠시였다. 칼로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칼로는 화가의 꿈을 꾀다. 침대에

간혀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그림 그리기밖에 없었다. 재활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다시 걸을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당시 칼로의 나이는 겨우 열아홉이었다.

### 절망 위에서 헤엄치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술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칼로는 1929년, 디에고 리베라와 대뜸 결혼식을 올렸다. 리베라는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다. 그런 그와 칼로의 나이 차는 스물한 살. 키는 20cm, 몸무게는 100kg 이상 차이가 났다. 칼로는 리베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했다.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 칼로는 본인을 향한 이런 식의 조롱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리베라는 칼로를 아끼지 않았다. 리베라는 병적인 바람기를 갖고 있었다. 칼로는 대개 혼자서 속앓이를 했다. 하지만, 리베라가 그녀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외도를 한 일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어느덧 둘 사이 불화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그사이, 칼로는 유산과 불임의 고통과도 마주해야 했다. 불행한 옛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영혼이 갈가리 찢어진 칼로는 리베라와의 이혼을 택했다. 이때가 1939년, 서른두 살 때였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이듬해 다시 결합했다. 칼로는 그만큼 리베라를 사랑했다. 하지만 리베라는 또, 또 바람을 피웠다. 지독한 행태였다. 통증에 거듭 짓이겨졌기 때문일까. 위태롭게 균형을 잡아가던 칼로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약해진 척추는 어느덧 강철 코르셋만이 간신히 지탱할 수 있었다. 점차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유도, 여유도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 무렵 칼로는 괴로워하기만 했을까. 아니었다. 칼로는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끈질기게 붓을 쥐었다. 밀도 높은, 쿠타넬

은 파블로 피카소와 바실리 칸딘스키마저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림을 거듭 내놓았다. 칼로는 작품 중 상당수에 본인의 아픔을 담았다. 그렇게 슬픔과 우울, 분노와 좌절 등 너절한 감정도 열정의 연료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죽지 않고, 그 위에서도 힘껏 헤엄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 말 그대로 불굴의 열정을 보여준 것이다.

### 열정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1954년, 7월 13일. 그랬던 칼로는 이제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숨은 점차 얕아지고, 심장 소리 또한 서서히 흐릿해졌다. 칼로는 이날 사망했다. 향년 마흔일곱 살이었다. 그녀의 삶은 도전과 극복, 의지와 열화를 소재로 한 영화 같았다. 한 장면도 편집할 게 없고, 말과 기록한 줄조차 덜어낼 게 없는. 멕시코는 그녀를 지금도 국보급 화가로 예우하고 있다.

그녀는 영영 눈을 감기 여드레 전, 마지막 그림을 작업했다. 제목은 ‘인생이여 만세(Viva la Vida)’. 싱싱한 수박 더미가 아무렇게나 잘려 있는 작품이었다. 우리네 삶은 이렇게나 제멋대로지만, 그럼에도 모든 형태는 이토록 생기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 그림은 그녀의 깨달음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칼로의 삶은 열정이란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끔 한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도 굴하지 말고 마음을 힘껏 불태워보자.



인생이여 만세(1954)

### 이원울

헤럴드경제 기자, 미술평론가. 매주 온라인에서 기사 <후암동 미술관>을 연재하고 있다. <무서운 그림들> 등을 썼다.



##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2024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나은요양병원

의료기관은 환자가 중심인 곳이다.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직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은요양병원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직원이 즐겁게 일할 때,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은요양병원의 안재용 기획실장을 만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원과 환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나은요양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박향아 사진 김경수

### Q 나은요양병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은요양병원(병원장 안소희)은 2012년 6월 28일 개원한 이후로, 최상의 환자 중심 서비스로 신뢰받는 병원, 전 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병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120여 명의 직원이 200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 24시간 간호·간병, 물리치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 Q 나은요양병원만의 특징점과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은요양병원은 중증 노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요양병원 특성에 부합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잠재력을 갖춘 내실 있는 병원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운영 면만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환경관리, 시설관리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안정적인 고용과 가치관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2016년 전 직원의 직접 고용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의 공간은 노사간의 화합과 상생 의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노사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시스템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직원’이니까요.

### Q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병원 개원이 10년 차를 넘어가면서, 근속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도 차츰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 근무 경력과 능력에 맞는 직급·임금 체계 개선, 직급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체계 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더하여 근속연수 증가와 함께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연령대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고령자의 계속근로를 위한 방안



마련의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반영해 조직의 성장과 구성원의 안정성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컨설팅의 진행 과정과 그 과정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컨설팅의 가장 큰 주제는 '임금체계 개편'이었는데요. 컨설턴트와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병원의 운영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도출하여 우리에게 맞는 이행 절차를 수립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의 소통 역시 컨설팅 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였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급체계에 맞춘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사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Q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기존의 인사관리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감. 이것이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노사가 동일하게 가졌던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인사평가와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원 개개인이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평가상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과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임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 조직에 맞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와 협력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해당 정보를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나갔죠.



인사평가제도 도입의 목적이 평가를 통한 상·벌 부여에 있지 않고, 관리자급 직원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효율성 향상에 있음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인센티브는 기존 급여체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발휘한 역량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갔고요. 지금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수립한 제도를 이행 중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 이행의 방식 또한 우리 병원에 맞게 개선해가는 중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노사 간의 대화는 필수입니다.

**Q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전북 워라벨경진대회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수상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법과 의료수가의 영향을 받는 사업 특성상 요양병원의 매출 규모는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업장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화합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활동 주제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 중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실력과 열정, 노력을 알리고 인정받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자긍심이 되고, 작은 보상이 되는 거 같아요. 긍정적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해온 시간이 수상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Q 그밖에 자랑할 만한 복지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근로자들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유연근무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도 시간 단위 연차 허용)를 시행하고, 임직원 휴양시설 이



용 지원, 다양한 형태의 우수직원 포상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리더십 라운딩, 가족 참여 행사, 직원 공모전 등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작한 월례 동호회 활동도 직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교대 근무가 많은 근무 여건상 동호회가 활성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동호회 활동을 결정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온요양병원의 첫 번째 동호회인 '둘레길 산책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산책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지만, 병원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참 행복합니다.



# 열정이란, 삶이라는 ‘영화’에서

## 열연하는 나에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TV 영화 프로그램의 숨은 주인공이다. 저서 <육퇴한 밤, 홀로 보는 영화>에선 아들 ‘한방이’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성장하는 씨네맘으로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프로 N잡리이자 열정 가득한 방송작가 천준아가 선보이는 부귀영화(복 With 영화)를 지금, 개봉한다.

글 오민영 사진 오충근 장소 협찬 오얏리커피



Q 각종 영화 프로그램 방송 구성과 강의, 도서 집필 등 다방면에서 프로 N잡리로 활약하고 있는 천준아 작가님의 최근 일상이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0년 방송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해 어느새 25년 차에 들어선 천준아입니다. SBS <접속! 무비월드>부터 KBS2 <영화가 좋다>, EBS1 <시네마 천국>, MBC <출발! 비디오 여행> 등 영화 전문 프로그램을 두루 거쳐 왔고요. 최근엔 프리랜서로서 CJ ENM 채널인 OCN의 <2025 아카데미 시상식 TV 독점 생중계> 구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손꼽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생중계는 3년째 준비해 왔는데 올해 특히 볼거리가 많을 듯해요.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10개 중 2개는 비록 아직 국내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영화 팬 여러분에게 익숙한, 나머지 여덟 작품이 워낙 훌륭해서 저 또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 학교 6학년이자, 제가 저서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를 집필하게 한 모티브인 아들 ‘한방이’ 엄마로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지난 2021년 선보인 저서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의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영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매주 소개하는 많은 작품 가운데 유난히 뇌리에 머무는 대사를 발굴하곤 해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명 ‘뻐 때리는’ 메시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웃음)

이러한 발견을 자양분 삼아 나름대로 아카이브를 만들었는데 혼자 보기가 아쉬웠어요. 다행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니 아직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출간한 책이 없었죠. ‘그럼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콘셉트를 구상하고 원고 세 편을 먼저 써서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단 이틀 만



에 계약까지 성사했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인 2019년 12월 30일이라서 날짜까지 또렷이 기억나요.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육아입니다. 그런데 '육아'에서 '아'는 아이(兒)뿐 아니라 나 자신(我)이기도 해요. 아이와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일화를 다채로운 영화와 같이 맛깔나게 버무렸어요.

**Q 이 책을 집필하면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육아 에피소드가 있는지요?**

앞서 소개한 아들 한방이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해서 받아쓰기 시험 0점을 받아온 에피소드가 있어요. 굳이 어릴 때 선행학습을 무리하게 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데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옆집 아이는 90점이라는데요(웃음) 그래서 같은 단어 10개를 5번씩, 총 50번 쓰도록 연습 시켰습니다. 대망의 재시험 날 과연 결과는? 무려 30점이었습니다. 친구는 100점이었고요. 여전히 실망하는 제게 한방이가 남긴 명언이 있었어요. '나는 0점에서 30점, 친구는 90점에서 100점이니 우리 둘 다 똑같이 잘했어.'

영화 <하나 그리고 둘>에는 양양이라는 8살 소년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서 필름 카메라를 선물 받아 열심히 찍는데 인화한 사진엔 모조리 사람 뒤통수가 나와요. 어째서인지 물어보는 아빠에게 양양이 기막힌 대사를 합니다. '앞만 보고 뒤는 못 보니까 반쪽짜리 진실만 보이는 거죠.'

당연하지만, 누구나 자기 얼굴과 달리 뒤통수는 바로 볼 수 없잖아요. 즉, 저는 한방이와 그 친구의 점수만 보고, 노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은 간과한 셈이었죠. 이러한 일화를 거치며 역시 육아와 영화는 저를 키우는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덧붙여 제가 느낀 감동을 더 많은 독자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다양한 작품 감상과 프로그램 구성, 더 나아가 저서까지 쓰려면 시간이나 집중력 뿐 아니라 상당한 열정이 필요할 텐데요.**

돌이켜 보면, 저는 하고 싶은 활동에 거침없이 도전해 왔어요. 좋아하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곧 지치지 않는 열정의 비결인 듯해요. 대학 재학 중 영화 동아리에서의 추억, 작품 시나리오 집필을 시도하느라 몰두했던 시간, 각종 영화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한 나날 등이 축적해 오늘날 저를 이뤄냈습니다. 또,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를 구상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죠. 현재 한겨레문화센터 영화 에세이 쓰기

강의와 각종 강연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 또한 여기서 비롯됐고요.

실은 활동 범위를 넓힐수록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때론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러면서도 '10년만 어리면 유튜브를 해보겠는데'하는 욕심이 있죠(웃음)

**Q 활발하게 저변을 넓히는 가운데, 염두에 둔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금 동화 한 편을 쓰고 있어요. 이 작품 또한 아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었죠. 한 여자아이가 초고층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와 드론으로 소통하는 스토리를 집필 중입니다.

그 밖에 올해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육퇴한 밤, 혼자 보는 영화>의 후속으로 <눈부신 단역(가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영화에 등장했지만, 기간 눈여겨보지 않은 단역을 재조명하는 책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 스쳐 가는 단역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역으로 살면 좋을까? 나쁜 단역들도 있

겠고, 비겁한 단역들도 있을테고. 영화 속에서 이런 단역들의 얘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작가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월간내일' 독자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정은 혼자가 아닌, 우리로서 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단지 생각에 그치는 분은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겠고요. 저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는 성품이라면 한방이와 영화 같은 단짝에게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Passion)은 고난이란 뜻의 라틴어인 파티(Pati)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열정을 갖고 시도해 목표를 성취하는 여정엔 난관이 있을 수밖에요. 그럼에도 또 다른 봄이 찾아오는 3월, 자신 안의 새로운 열정을 꺼내 보세요. 연말엔 분명 '하길 잘했다'라고 미소 지을 걸요?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이슬 씨

##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 설렘으로 오늘도 맑음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슬 씨는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출근길이 설렌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는 어렸을 때 꿈을 당당히 웹툰 PD가 되어 실현했다. 그 시작은 국민내일배움카드였다.

글 차유미 사진 김경수

###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이슬 씨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특별하지 않았던 대학 생활, 운이 좋아(그녀는 운이라고 하지만 노력의 시간임이 분명하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된 첫 직장. 남들과 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한 번의 이직, 이번엔 전공과 무관한 편의점 영업 관리 업무를 맡았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도 오르고 복지도 꽤 좋은 회사였다. 그렇게 나쁜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이슬 씨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찾아왔다. 한 번 든 의문은 쉽게 떠나지 않고 가슴까지 찾아와 답답하게 했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직하고, 일하는 동안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 그 생각이 드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도 될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그때 서야 찾아온 거죠.”

뒤늦은 사춘기를 겪으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된 이슬 씨.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반복됐다. 그러면서 감춰두었던 꿈을 떠올리게 됐다. 바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PD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슬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웹툰 PD가 돼야겠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나다

결심이 선 이슬 씨는 웹툰 PD 모집공고를 보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전공자도 아니고 만화를 그려보지도 않았고 관련 경험도 없었던 그녀가 바로 취직이 될 리는 만무했다. 취업의 문턱이 높다고 한들 이슬 씨에게는 처음 맛보는 인생의 쓴맛이었다.

“웹툰을 좋아하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웹툰 PD가 될 수 없었어요.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일을 해봐야 경험도 쌓이는데 일할 기회조차 없으니 정말 막막했어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만화콘텐츠(홍보 웹툰·캐릭터)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이라는 수업을 발견했어요.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보니 훈련과정은 탄탄했고, 커리큘럼은 웹툰 PD에게 꼭 필요한 수업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지는 훈련과정을 직장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훈련을 마친다고 취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설레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현실’이나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생활이지만 가슴 뛰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또다시 이슬 씨에게 찾아왔다. 기회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웹툰 PD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 강의를 들으러 가던 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어요. 도착한 강의실에는 10대 남학생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일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구상하던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행복했어요.”



**매일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시작이 내일배움카드였습니다.**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담는다**

이제 이슬 씨는 글로벌 웹툰 기획제작사인 씨엔씨레볼루션의 어엿한 5년 차 웹툰 PD가 됐다. <회귀자 사용설명서>, <부부 어디까지 가능해> 등의 웹툰을 직접 론칭해 연재 중이고, 지금도 5개 이상의 웹툰을 총괄하고 있다. 모든 과정에 관련된 작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때 훈련을 받았던 때문이라고 말한다.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수업 과제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이력서와 함께 제출했고 그것이 좋은 인상을 남겨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그때도 업무 관련 이력은 없었지만, 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고 웹툰의 스토리를 짜고 캐릭터를 구상했던 모든 과정이 포트폴리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는 4개월의 훈련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꿈을 이뤘다.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PD와 관련된 경험이 하나도 없던 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매일 그림을 그리며 인체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것, 클립 스튜디오와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회사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PD로서 웹툰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것... 그 어느 하나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취업의 어려움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찾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속에서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는 온 우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 ‘특별하고 트렌디한 분야는 없다’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편견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 하나하나를 성실히 수행했던 이슬 씨는 당당하게 웹툰 PD가 되었다. 이슬 씨는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출근길이 오늘도 설렌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시행한다. 근로시간, 고용보험 확대, 직업교육 지원 등이 새롭게 강화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

- 기업** 채용장려금 720만 원(1년)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2년, 18~24개월 차 각 240만 원) 지원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 상습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명단 공개 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체불 피해 근로자**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애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내용**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

## 중장년경력지원제 신설

중장년의 일경험 지원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력전환을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 참여자** 참여 수당 월 150만 원 지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전액 소진한 사업장이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등을 희망 시 무상지원금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 추가 지원

- 기본 계좌 한도(300만 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 지원(100만 원 또는 200만 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 지원 한도 100만 원 → 200만 원 상향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정부가 역량 있는 기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기업 내 자격 신뢰도 향상, 인사제도와 유기적인 연계,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 전문성 고취, 자긍심 고취

-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청년기술채용 사업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에게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b>운영기관</b>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 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b>연수대상</b>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 근로자
<b>연수유형</b>	국내연수
<b>지원내용</b>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인근 산단과 연계하여 뿌리산업분야 기술인력을 신속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 구축

<b>운영 캠퍼스(분야)</b>	남인천(기계), 포항(광물·금속), 순천(비금속·철강)
<b>운영시기</b>	'26년 운영 개시 예정
<b>운영방식</b>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4주~6개월)
<b>기대효과</b>	지역 산업현장에 적시적기 맞춤형 인력 공급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ATS: Applicant Tracking System)을 활용하도록 하고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 원) 지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중대재해 감축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b>인상</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b>스마트 안전장비</b>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24년 40% → '25년 70% → '26년 100%]
<b>단기계약</b>	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생활안정자금(용자) 이차보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b>지원요건</b>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b>지원한도</b>	500만 원 ~ 1,000만 원(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3% 이내 이자 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용자종류 신설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해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b>대상</b>	용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b>한도</b>	1,000만 원(자녀 1인당 500만 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인정심사 기준 강화(70 → 90점)	·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 지원

<b>지원내용</b>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지원
-------------	---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b>지원내용</b>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 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	---

## 열정으로 딛는 걸음 행복에 성큼 다가서다

김현철 호텔 인스펙터

실직과 재취업 경계에서 잠시 길을 잃었던 김현철 씨. 중장년내일센터를 만나 호텔 객실 최종 점검을 담당하는 인스펙터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중이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하루 걸음 2만 보도 거뜬하다. 오늘도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열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중이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 절망의 기로, 호텔리어에 도전하다

인스펙터(Inspector)는 메이드가 정비를 완료한 객실 상태와 품질 등을 최종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꼼꼼한 눈썰미는 물론 완벽한 일처리로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역할이다. 지난해 모헤닉호텔 인스펙터로 입사한 김현철 씨는 하루 50여 개의 객실을 살핀다.

“객실 하나당 체크할 요소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체크아웃부터 체크인까지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 만큼 매우 바쁩니다. 일일 2만 보 정도를 걷는데, 어떨 때는 땀이 뻘뻘 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많이 걸어 다닌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절로 운동이 되니까 체력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웃음)”



과거 김현철 씨는 1990년대부터 인쇄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으며 굵직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인쇄업이 쇠퇴기로 접어들자 미래에 유망한 직종을 고민했고, IT 관련 기술을 배워 학원 강사와 개발자로 활동하며 커리어 반경을 넓혀왔다.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마치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다. “실직 후 3개월 동안 하루에 20여 곳씩 지원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서울중장년내일센터로부터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앞섰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호텔’과 맞닿은 업을 떠올린 적이 없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순간이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서울 중구가 함께 운영하는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은 직무설명회부터 이론교

육과 현장실습, 취업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무 역량은 물론 자신감까지 쑥쑥**

교육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김현철 씨는 시설관리를 선택했다. 맥가이버처럼 전기와 조명 등 호텔 시설을 다루는 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터. 호텔업의 이해부터 직무 이론교육 등 맞춤형 커리큘럼에 참여했다. 수료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현장실습 또한 만족스러웠다. 호텔을 방문해 직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

“강사님들이 ‘호텔 분야 취업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되레 빠른 것이니 도전해 보세요’라고 말

“과거에 얼마이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도전에 가치를 두세요. 언젠가 환하게 그 가치를 밝힐 날이 올거예요.”

씀하시곤 했어요. 호텔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써 주신 덕분에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교육 수료 후 내일패키지 재취업준비형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취업시장 뽀개기 & 면접전략’을 수강하면서 취업 가능성을 높여갔다. “취업은 면접에서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전에 이력서 한 장으로 저를 소개해야 하고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조적인 방법부터 자기소개서의 핵심 내용, 면접 전략 등을 배웠습니다. 면접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처음 도전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을 바탕으로 취업의 문을 계속 두드린 결과 인스펙터 직무 취업에 성공했다.

**나를 혁신하는 열혈 인스펙터**

자기혁신은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김현철 씨는 하루하루의 경험을 업무 스킬로 연마하며 인스펙터로 한층 성장했다.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툴을 사용한다. 기존에 종이 업무 장표에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지만 좁은 칸을 채우다 오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고안한 그만의 업무 방식이다. 문서 작성 툴 ‘노션’과 PC 홈페이지를 활용해 각종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만들고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기, 수도, 목공, 조명 등 시설관리 업무도 함께 도맡고 있다.

“과거에는 나사 하나 못 같았어요. 지금은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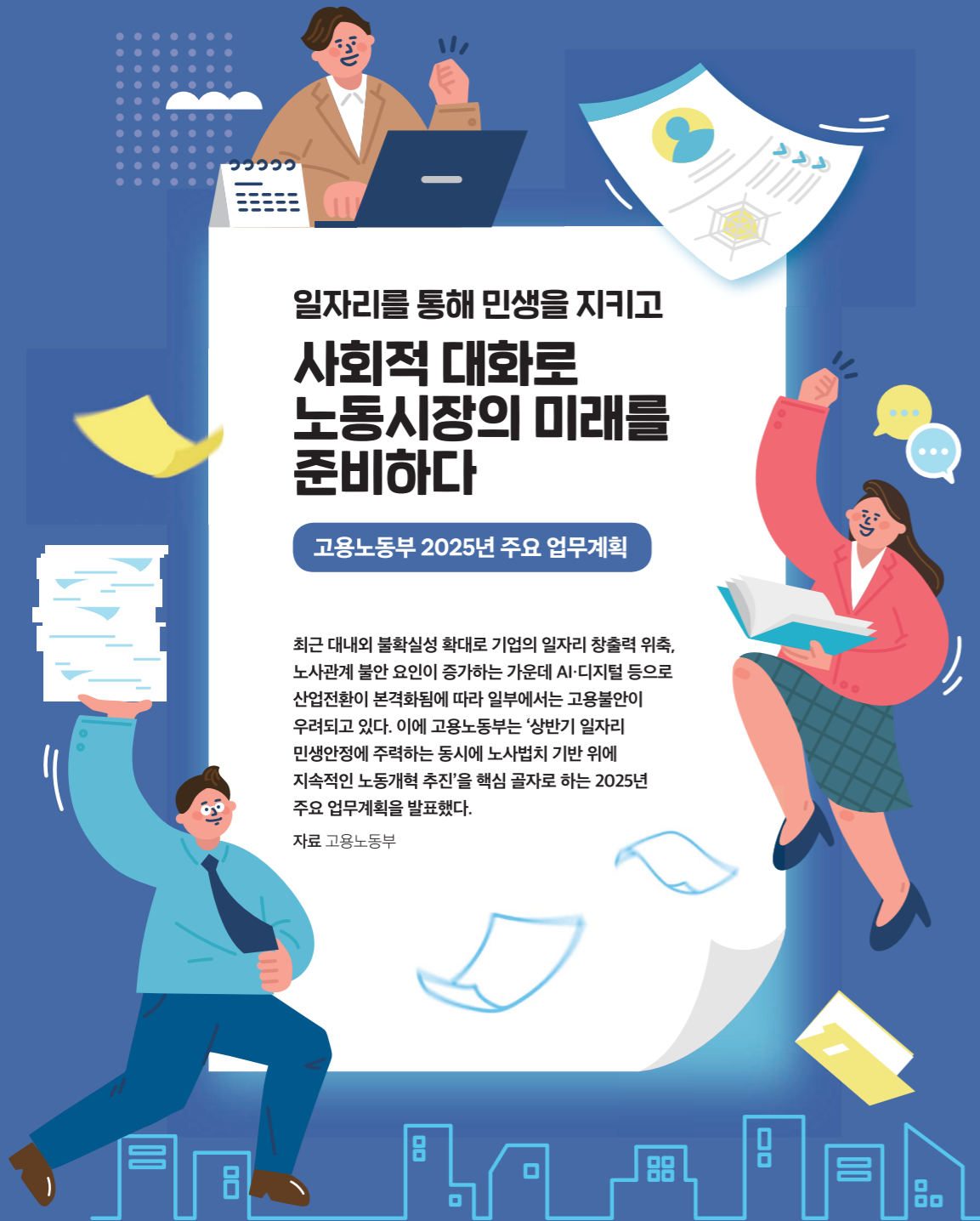


감고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웃음) 앞으로 전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어요. 정교한 회로 구조나 시스템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교육 당시 강사님이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서비스의 본질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합니다.”

재취업을 고민 중인 중장년층을 위한 도움말도 덧붙였다. 과거에 얼마이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도전에 가치를 두라고 전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니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일할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 정직하고 신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대낮처럼 환하게 제 가치가 밝혀질 테니까요. 요즘에는 마음도,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를 즐기겠습니다!”





#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다

##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고용 불확실성에 대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 자리를 제공한다(통합공고 실시, 1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2개→7개)한다.

●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 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용자도 확대(2→3천만 원)한다.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부)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자체(충청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5만 명)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5.8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 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과기·교육·복지부 등)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도 지원(4.5만 명)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2년간),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여 근속을 유도한다.

●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신한금융이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중장년에게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장애인 고용법 특례 신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36→42개)하고, 맞춤형 컨설팅(500개소)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갑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기초노동 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25년 160억 원)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상반기)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25년 118억 원)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뿌리산업, 조선업)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또한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24.6.7. 발의)도 추진한다.

●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고용(인구 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유연근로)과 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프라혁신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하여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가입자 1천만 명)'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베테랑→마스터)'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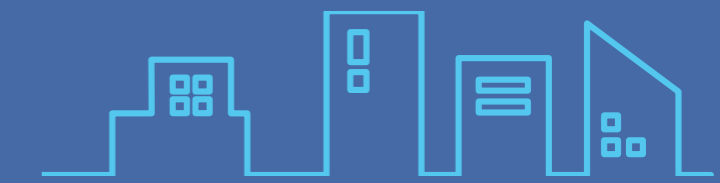
###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합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3.4만 개소)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산업안전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상반기)하고 씬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25년, 23억 원)하여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4년 10월)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25년 6월).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25년, 200억 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 15종→19종)

●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기부, 중기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12월)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활용을 지원(25년 350억 원)한다.



## 우리들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

### 황영주 반려식물병원장

코로나 19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던 시절, 그 공백을 채워준 것은 작은 화분 하나였다. 많은 이들이 싱그러운 에너지로 공간을 채우는 식물의 매력에 빠져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었고, 더 좋은 식집사가 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슬기로운 식물 생활'을 위해 아픈 식물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곳,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식물병원 황영주 병원장을 만나, 식물치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박향아 사진 오충근

#### Q 2023년 4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원한 반려식물병원인데요. 반려식물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이름 그대로 우리가 키우는 식물, 반려식물을 위한 병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픈 식물을 치료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의 반려식물을 잘 이해하고 슬기롭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의 잎이 갑자기 축 처진다거나 색이 변할 때, 혹은 내가 식물을 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서울의 자치구 8곳에 개설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반려식물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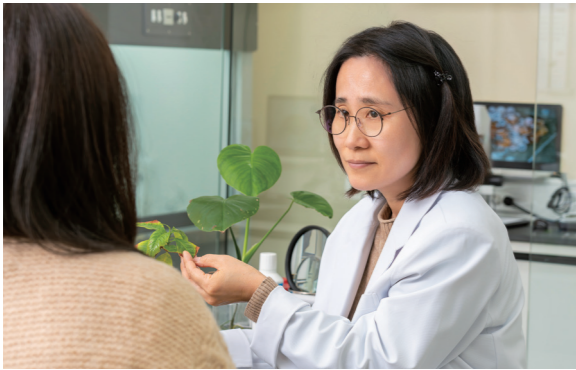
#### Q 반려식물병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식물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육안으로 식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면, 현미경으로 진균이나 세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직접 뿌리를 검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당일 치료를 통해 치료가 마무리될 때도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7일에서 3개월까지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화상 진료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고요. 식집사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방문하는 분 중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물만 열심히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죠. 식물 키우기의 기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료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병은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니까요. 분갈이, 번식, 관리, 가지치기, 식물 생리 등 주제를 정해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Q 반려식물병원이 설립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 소위 '식집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취미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식물 키우기'가 언론 등을 통해 주목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왔어요. '식물을 처음 키우고 있는데, 물을 잘 주는데도 자꾸 잎이 시든다', '식물





이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 어린 전화가 대다수였죠.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육성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최초의 반려식물병원이 개원하게 됐습니다.

**Q 식물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반려식물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없다 보니 관련 양성 기관도 없는 상태예요. '식물치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물관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법률과 교육 기관도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농업과 식물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양성과정에 참여하려면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식물의 생리와 병충해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식물치료사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식물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관찰력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식물은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하고 생육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죠. 소통 능력도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현미경으로 식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은 어떻게 주고 화분 위치는 어떠한지 등 식물의 생육 환경과 정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진료를 위해 방문을 하면 평균 30분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끌어내고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몰라서 식물을 죽인 것 같다'며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기르시던 식물이라며 꼭 살려달라'고 제 손을 꼭 잡으시는 분도 있고요. 식물을 잘 관찰하고, 식집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식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큰 분들이 좋은 식물치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식물치료 관련 분야는 어떻게 성장해나가리라고 전망하시나요?**

현재는 우리 병원을 비롯해 공공 부분에서 관련 병원이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물을 제대로 알고 더 잘 키우고 싶은 식집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화훼협회나 민간 차원에서도 식물병원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배우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원들도 단순히 식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식물의 생육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판매 후에도 SNS 등으로 계속 소통하며, 성장관리를 하면 더 좋겠죠.

**Q 식물과 함께하면 생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돌이켜보면, 저도 많은 식물을 키웠고 많은 식물을 죽여보기도 했어요. 내가 배운 이론과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식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고요. 식물의 잎이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는 과정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물론 다육식물과 같이 큰 변화가 없는 식물도 많아요. 하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반려동물처럼 적극적인 케어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라기도 하고요. 너무 열심히 물을 주면 오히려 과습으로 식물이 죽기도 하니까요. 한 걸음 떨어져서 천천

히 작은 변화를 느끼는 것, 그 안에서 발견하는 안정과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식물치료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금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학생들의 경우 농과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농업학이나 원예학 쪽으로 진학해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확산이 생기면 식물보호기사 기능사 자격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일지'도 써보고, 식물에 대해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지식과 만났을 때, 좋은 식물치료사가 될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이 될 테니까요.





## 가평의 이탈리아로 가볼까

경기도 가평은 수도권에서도 멀지 않고, 다양한 휴양지가 있어 휴가철 여행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보통은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여름이 가장 성수기다. 하지만 워낙 자연조건이 좋고, 풍경이 아름다워 다른 계절에 찾아도 아쉬움이 없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가평을 찾았다면 탁 트인 가평의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로 가볼 것을 추천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탈리아의 문화, 소품, 풍경 등을 체험하고, 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2021년 5월에 개관한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이탈리아 테마파크로 개관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가평군 청평면의 널따란 부지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건축양식을 본떠서 만들어서인지 멀리서 봐도 저절로 시선이 간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속 캐릭터 피노키오와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이 주 콘텐트로 꾸며져 있어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 가평에서 만난

### 이탈리아

경기도 가평은 휴양지로 잘 알려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득 비행기를 타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적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가평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의 이국적인 풍경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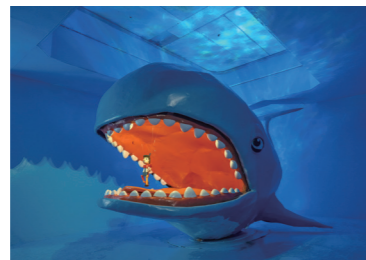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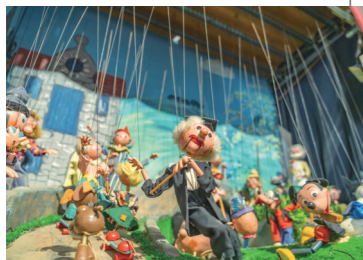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 거대한 피노키오가 반기는 곳

동화 <피노키오>는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작품이다.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많지만, <피노키오>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독자들은 '피노키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무려 1883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으니 가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캐릭터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피노키오다. 여행자들을 반기는 거대 피노키오 동상 덕분에 더욱 이탈리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여행

객들을 반기는 거대 피노키오 동상은 10.8m의 높이로, 이탈리아 콜로디 재단의 피노키오 디자인을 모티브로 무려 6개월에 걸쳐 특별 제작된 것이다. 16m 이탈리아 피노키오 동상과 13m 미국 피노키오 동상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크기다. 거대 피노키오 동상 앞에 서면 밑에 있는 뾰뚱 프랑스와 청평호의 풍경이 한 눈에 보인다. 아름다운 전경 덕분인지 마을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입장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가평에서 즐기는 근사한 이탈리아 투어



피노키오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면, 드디어 이탈리아 여행이 시작된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피노키오 극장, 야외 극장, 빈치회랑, 다빈치 전시관이다. 일정을 잘 맞춰서 오면 연극과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관람이 가능하다. 이 공연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아쉽게 공연을 놓쳤다면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탐정 투어 이벤트에 참여해 보자. 매표소에서 명탐정 투어 쿠폰을 구매하고 지도를 가지고 쿠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마을을 여행하며 퀴즈를 풀고, 쿠폰 반납 후 퀴즈 점수를 매표소에 보여주면 된다. 미션을 해결하는 재미와 선물 받는 재미가 있어서 인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많다. 바로 크-로코코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부터, '베니스의 카니발' 공간에서는 화

려한 가면을 쓰고 인증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와 관련된 테마를 담은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니 발길 가는 대로 즐겨봐도 좋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다빈치 전시관은 필수로 가볼 것.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을 맞이해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게!'라는 마을의 슬로건처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피자로 마무리해 볼까? 인근에는 청평호를 감상하며 피자를 먹을 수 있는 피자 맛집들이 꽤 많다. 짧은 시간 안에 꽤 그럴싸한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온 기분이 들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갈수록 무색해지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화장품 업계다. 5천 원 이하의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성분과 기능성으로 무장한 이른바 ‘저렴이 화장품’이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글 강진우

## 5천 원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가성비

젠지세대와 저렴이 화장품



### 저비용·고효능 화장품의 등장



일반적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소비자는 화장품을 살 때 백화점이나 화장품 편집숍에 가서 적어도 2~3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요즘 10대에서 30대 초반의 소비자들, 즉 젠지(Gen Z)세대 중 상당수는 저가 제품을 파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화장품을 산다. 이들이 선택하는 화장품은 대부분 5천 원을 넘기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가성비세대에 비해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다.

레티놀(Retino)은 주름 개선, 각질 제거, 항산화, 피부 재생 등의 효능이 입증된 고급 화장품 성분의 대명사다. 그만큼 원료 가격도 비싸다 보니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 화장품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젠지세대가 즐겨 찾는 저가 화장품 중에서도 레티놀 함량이 높은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명품 브랜드에서 내놓는 색조 화장품의 발색을 거의 똑같이 구현한 저가 제품도 큰 인기다. 요컨대 합리적

가격과 높은 기능성을 모두 갖춘 소위 ‘저렴이 화장품’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도 속속 저가 라인 브랜드를 론칭해 생활용품 판매점과 온라인에 공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브랜드에는 흔히 ‘by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보통 ○○○에는 소비자 대다수가 잘 아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명이 적혀 있다. ○○○에서 만든 브랜드임을 강조해 저렴이 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이다.

### 저렴이 화장품 인기의 배경, ‘듀프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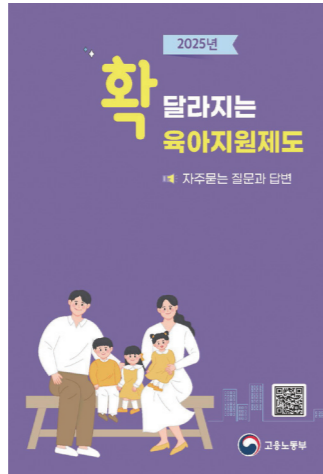
저렴이 화장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집중’이다. 특정 성분과 기능성에 집중한 제품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품량 레티놀을 자랑하는 고가 화장품은 이외에도 다양한 유효 성분을 두루 포함하는 반면, 고품량 레티놀 저렴이 화장품은 다른 성분의 함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브랜드 대신 성분을 알아보고 화장품 구매를 결정하는 ‘성분 디깅러’가 젠지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홍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저렴이 화장품의 특징이다. 화장품 용기에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며, 용량도 고가 화장품 대비 적다.

결론적으로 저렴이 화장품은 화장품 본연의 기능성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가 최대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젠지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듀프(Dupe) 소비’와 결이 잘 맞는다. 듀프 소비란 명품의 대안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위다. 불경기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탓에 유명 고가 제품을 사기 힘들어지자, 이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가성비 대체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젠지세대가 듀프 소비를 따라하고 싶은 ‘힙(Hip)한’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명 SNS에서 ‘dupe’를 검색하면 39만 건 넘는 게시글이 등장하며, 대부분이 듀프 소비를 자랑하는 내용이다. 이런 추세로 미뤄 볼 때, 저렴이 화장품의 인기는 한동안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MOEL News

## 01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육아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을 계획 중인 근로자들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이 수록돼 있다. 이 자료는

## 0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내일배움카드 계좌 추가 지원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 자부담률이 0~20%로 낮아지며,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직자들의 훈련기회도 확대된다.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 일부를 구직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 이에 따라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며, 구직자들이 더욱 다양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 03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공개



다. 노동부는 KRAS와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모은 위험성평가 자료 모음집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위험성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지난 1월 2일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모바일 웹을 통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

## 04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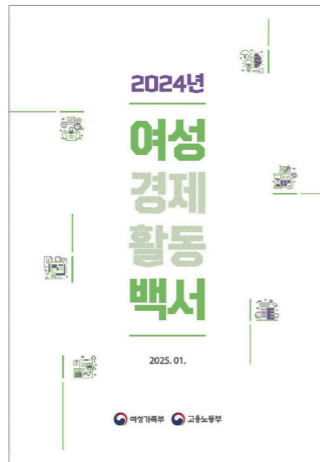
히 전용전화의 경우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부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2월 28일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했다. 특



# 05

##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월 16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변화를 담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수록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화했다. 또한 새롭게 향후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이 필요한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용 동향과 여성벤처기업 현황을 수록하고, 여성의 일자리 질적 분석에 필요한 근로 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 06

## 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천만 달성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 07

##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애로청

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 애로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동안 회사를 계속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을 제공한다.

# 08

## '25년 1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13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몸소 체험하며, 기후위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실감한 사람이 늘어난 것. 덕분에 주목받게 된 덕목이 있으니, 바로 기후감수성이다.

글 강진우

## 예민한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더 예민한 감각

### '기후감수성'



#### 기후위기 해결의 첫걸음, 기후감수성

2023년 7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는 끓는 시대에 들어섰다.” 2023년이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다. 이 말을 증명하듯, 2024년 7월 22일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7.15°C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날을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명명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어느새 기후위기라는, 보다 직관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용어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을 웃돈다. 환경부가 2023년 4월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C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치인 1.09°C를 뛰어넘는 수치다. 무더위로 유명한 태국 방콕의 2024년 7월 25일 기온과 습도는 각각 30.7°C, 76%였는데, 이날 서울은 32.2°C, 80%를 기록했다. 서울의 더위가 방콕보다 심했던 것. '동남아로 피서 간다'는 말은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기후감수성은 이렇듯 심각한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 혹은 능력을 일컫는다. 기후위기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일으켜 전 세계인의 재산, 안전,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만큼, 기후위기 심화를 막기 위한 각계각층의 실질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기후감수성은 이 시대의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건강한 기후감수성'으로 바꾸는 세상

다행인 점은 시민들의 기후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응답자의 83.1%가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닥칠지 몰라 불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나와 주변의 실제적 위험



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이런 와중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들도 상당수다. 위와 같은 문항에서 '내 개인적인 노력이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무력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2.9%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최근 '기후우울증'이라는 신종 우울장애를 발표했는데, 이름 그대로 기후위기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지나친 기후감수성이 자칫 기후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기후감수성도 적당한 발현이 중요하다. 각자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철저한 분리수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조강하면서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 완화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공동의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건강한 기후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열정가라면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유형을 가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더욱 성격유형과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메이크업아티스트에 도전해보라.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 INFP의 특징

#내향적 #창의적 #민감한 감성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INFP는 '중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 이상적이고 진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내면의 신념과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살아간다. 현실보다는 미래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려 한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이상을 중요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이 어울린다.

###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내향형 I ✓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N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직관형 N ✓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 F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형 F ✓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인식형 P ✓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 나에게 맞는 직업을 있을까?



###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성향

자기개발

새로운 트렌드를 관찰하고 적용하고 싶다.

의사소통

사진 촬영 감독, 고객과 상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손동작

섬세하게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신속성

피부, 얼굴,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미적감각

미술, 색채, 헤어, 의상에 관심이 많다.

체력

일정에 따라 새벽, 야간,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

-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고객의 메이크업을 담당한다.
- 헤어와 의상의 조화를 확인하고 화장법에 대해 조언한다.

관련 학과

- 메이크업아티스트과, 피부미용과, 코디네이션과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증 취득 가능

취업 분야

- 웨딩전문숍, 미용실, 방송국, 공연업체
- 특수분장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이미지컨설턴트

### 챗 GPT가 알려주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하는 일

메이크업아티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으로, 주로 사람의 얼굴에 화장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미적 변화를 주는 일을 한다. 주로 이벤트, 촬영, 무대 공연, 패션쇼 등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웨딩 메이크업

신부나 하객의 메이크업을 담당합니다. 결혼식은 대부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촬영 메이크업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촬영 등에서 캐릭터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

패션쇼 메이크업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여 디자이너의 의도와 옷차림에 맞는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특수 메이크업

특수 효과나 분장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화나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메이크업을 디자인한다.

### 메이크업아티스트 직업 전망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뷰티 관련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전문성을 갖춘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대중의 뷰티와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화된 메이크업 서비스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피부 타입이나 얼굴 구조에 맞춘 맞춤형 메이크업 기술도 요구된다.

글·그림 여혜리 작가

# 님아,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오.



활활 타오르는 것만이 열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요즘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꾸준한 열정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속도를 알고  
금방 지치지 않는 내 방식을 깨우친다면



작심삼일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도 줄어들 것이다.



뭐든 과하면 탈이 난다. 내 안의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선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 나를 꺼내줘



그럴 땐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있지요?



늘 해오던 방식이나 생각을 접어두고  
살짝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방법도 좋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생각도 조금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살짝 다르게 생각했을 때  
의외로 수월하게 답을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5년 2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QUIZ

올해부터 신설되어 시행되는 제도로,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재취업하고자 할 때 1~3개월간 일경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즈즈ㄴㄱ르즈ㅇ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와 능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팩트폴니스> 코너

Hint!

기후기스스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2월 21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강\*유(1338) 김\*은(6704) 김\*필(3977) 박\*(5875)  
송\*철(6017) 오\*일(9755) 이\*정(3340) 이\*련(5113)  
정\*진(2563) 허\*성(9090)



#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1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2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5년 2월 21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